



2008년 국내 상장기업 지속가능성평가 최종 결과 보고서

SolAbility Sustainability Assessment result

2008.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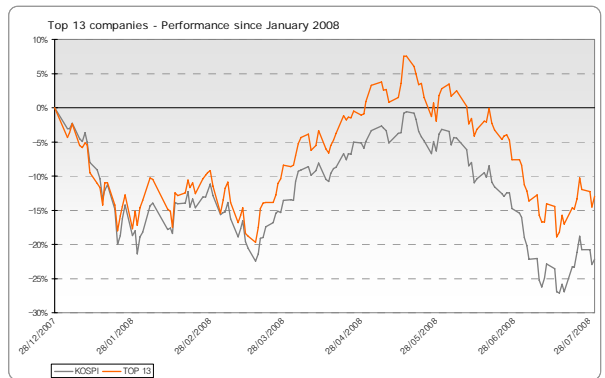
지속가능성 점수 상위 50개 기업 KOSPI 대비 190% 초과수익률 기록 지속가능성과 재무성과와의 상관관계 증명

지속가능경영 전문 평가기관인 솔라빌리티 (대표이사 앤디 게브하트)는 지난 30일 2008년도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발표했다.

솔라빌리티의 평가결과에 따르면, 지속가능경영 상위기업은 포스코, LG전자, LG디스플레이, 삼성SDI, 하이닉스, 한국가스공사, LG화학, SK텔레콤, 한국전력, 대우조선해양, 한화석유화학, 신한지주, KT 등으로 나타났다.

솔라빌리티 평가결과 경제·환경·사회 영역의 상위 50위에 속하는 기업을 2002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6년 7개월간 주가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코스피 수익률이 128.46%인데 비해 지속가능기업은 319.85%의 주가상승률을 보여 무려 190% 이상의 초과수익률을 기록했다. 또한 각 산업별 최고기업들은 같은 기간 내에 354.76%의 주가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지난해 평가에서 지속가능성 상위기업으로 선정된 13개 기업(포스코, 하이닉스, 삼성SDI, 한화석화, 신한지주, SK텔레콤, 대우조선해양, 아모레퍼시픽, 현대해상,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LG전자, 삼성전자)은 지난해 11월 1일 이후 코스피지수가 23.53% 급락한 데 반해 12.36%의 하락률을 보여 약세장에서도 안정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솔라빌리티는 이번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전반적으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지속가능보고서 및 환경보고서 발간 기업 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기업은 심층평가 대상기업 130개 가운데 12.4%에 그쳤으나 올해 22%로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삼성물산이 건설업 최초로 환경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지속가능보고서 발간확대 양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질적 수준 미흡 지속가능경영의 비즈니스 모델 전략화 필요

보고서 발간 업종도 확대됐다.

그러나 지속가능경영의 양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했다. 대중적 인식이나, 기업명성, 투자자·평가기관 등 외부적 압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대다수이며, 지속가능경영을 비즈니스 모델로 전략화하는 기업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부분에서 지난해에 비해 눈에 띄는 변화는 다수의 재벌그룹이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하면서 기업지배구조가 외형상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이러한 지배구조의 변화가 형식적인 체계구축의 수준에서 그칠 뿐 경영감시 및 통제 장치로 활용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경영 부문에서는 증권거래법의 의무공시 영역이 확대되는 등 법적 규제 강화에 따라 기업의 법규준수차원의 공시는 늘어난 반면 자발적인 공시 범위의 확대는 지난해에 비해 향상된 점이 그다지 발견되지 않았다. 다수의 대기업들이 여전히 담합, 거래상 지위남용 등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행부분에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한편, 기후변화이슈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일부 기업들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저감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것은 나타났다. 그러나 포스트교토 상황, 국내외 탄소시장 및 규제수준의 불확실성, 정부의 정책혼선 등 여러 가지 불안요소가 있고 또한 대체에너지 투자가 대부분 장기투자임을 감안할 때 기업이 전략방향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부분은 여전히 기존의 산업재해를 위주의 관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신규이슈인 번아웃, 스트레스, 심리적·정신적 질환 등 전반적인 직업관련 웰빙에 대한 인식 및 관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해관계자 참여는 보고서작성을 위주로 한 형식적인 설문조사에 그치고 있으며 전략적 학습, 전략검증 및 방향수정 등 이해관계자의 전략적 참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솔라빌리티는 28개 산업군에 대해 각각 200여개의 산업별 지표를 이용하여 지속가능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심층설문, 공시자료, 지속가능보고서, 언론보도, 정부의 공개발표자료와 제재 현황, 법정소송 현황, 시민단체 활동 자료, 인사노무 관련 정보, 각종 국제인증시스템 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평가를 마무리 하였다.

솔라빌리티는 지난 4월부터 4개월 동안 지속가능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는 국내외 투자기관에 제공된다.